

중등 고전문학 작품 ‘남성적-여성적 어조’ 지도의 문제

구 태 운* · 송 하 운**

< 目 次 >

- | | |
|---------------------------------------|---------------------|
| I. 이분적 구도의 정서 학습에 대한
문제제기 | III. 대안적 표현과 지속 필요성 |
| II. 어조 학습: 교과서 수록 학습
목표 및 관련 문항 분석 | |

< 국문 초록 >

중등 교육과정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어조’ 학습은 화자가 처한 상황 내지 시의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와 같이 성별에 따라 어조를 유형화하는 것은 작품 분석에 있어 큰 이견 없이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남성적-여성적 어조의 이분적 구도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현장 학생들의 실질적인 질의를 통해 상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 자료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성별 속성의 고정된 이해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 문학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문화화된 성별 속성을 통한 이분적인 어조의 구별방식은 현대 중고교 학생

* (제1저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camus1208@naver.com

**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교사 / gkdhs4239@naver.com

들의 질의를 받기에 충분하다. 남성의 속성과 여성의 속성을 더이상 문화적 보편성이나 전통성에 기대어 수용하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다수의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우리 문학에서 기초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거장의 시들을 성별 속성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가령 여성적 어조는 부드럽고 섬세하며 애절함이나 그리움의 정서가 두드러질 때 사용되며, 남성적 어조는 거칠고 호탕한 분위기나 시어 사용 및 단정적이고 강렬한 정서가 나타날 때 사용된다.

해당 이분적 구도는 일차적으로 성별과 특정 정서가 대응되는가에 대해 관습적 측면을 배제하면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예로부터 문학 분석에 사용되었던 정통 방식이라고도 볼 수 없다. 결정적으로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무엇이 남성적인 것인지', 또는 '무엇이 여성적인 것인지' 역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도의 효과도 떨어진다. 해당 학습법이 지속된다면 학생들이 성장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을 내면화하게 되는 부정적 결과 또한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문학 감상에 있어 남성적-여성적 어조의 이분적 구별 대신 부드러운 어조, 단호한 어조 등과 같이 화자의 '정서 자체'를 평가하는 표현의 지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고전 교육,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 시, 가사, 문학 교과서

I. 이분적 구도의 정서 학습에 대한 문제제기

"야. 이거 시가 여성적 어조래. 왜 여성적 어조임?"

"이거 몇 개 비슷한 시들이랑 같이 묶어서 시험에 꽤 나오잖아. 그냥 외워. 나도 그냥 너로는 완전히 이해 안 가도 눈에만 바르고 외웠어."

"아니 근데 이거 쓴 사람 남자 아님?"

"작가 성별이랑 시 안에 화자랑 다르지.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옛날 사람들 종족¹⁾ 중에 그리워하고 떠난 남자 붙잡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슬픈 거. 마음 찢기고 막. 뭔가 느낌 딱 오지 않아? 여기 '님을 향한 사랑+그리움' 이라

1) 種族, '종족 특성'의 준말로 특정 집단 사람들이 가진 공동의 특징이라는 뜻이다.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며 사전에도 등재되었다.

고도 필기 되어있네! 그냥 외워."

"뭐임? 그게 왜 여성적 어조야... 아 몰라 일단 외우고 넘어가야지. 그럼 나도 남친 사귀어봐야 하나? 옆에 남고 애는 여친이랑 깨지고 학원에서 어제 종일 울던데. 크크."

위 대화는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저자 1이 교생실습을 나갔을 때 들었던 대화이다. 친밀한 사이끼리의 은어 등은 소거하고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유독 기억에 남는 대화였다.

"선생님. 딱히 중요하지 않은 질문일 수 있는데 화자의 어조를 남녀로 정확히 딱 나눠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얼마나 섬세한데!"

"근데 학원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다고 외우라고 하긴 했어."

"선생님 이거 시험문제에 안 나오죠? 나오면 이의신청 해야지!"

작년 하반기, 당시 고교 국어과 부임 1년 차였던 저자 2가 수업을 마친 뒤 들었던 질문이다. 저자 2 역시 시의 어조 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해당 부분을 일전에 간략히 언급한 바 있었다. '너희 지난 수업 집중해서 안 들었구나.' 저자 2는 학생들에게 다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대화는 松江 鄭澈의 시와 관련된 것이었고, 두 번째는 金素月의 시와 관련된 질의였다. 두 작가 모두 우리 기초 문학 교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장이며 그들 시의 아름다움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송강의 가사들은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들에게 고전문학 지옥을 선사하며 다수의 국어 학습 포기자를 양산하기도 했다.²⁾

2) 정철의 시가 국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만큼 그의 작품들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학능력 시험 및 각종 모의고사에서 다수 발견할 수 있다. <思美人曲>, <續美人曲>, <星山別曲>, 특히 <關東別曲>은 고교 학생들에게 대학 국어국문학 전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만들기도 했다. 교과서 중 필기가 가장 빠곡한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시의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남녀 어조 구분에 대한 질의는 최근 수업 현장에서 종종 제시되곤 했던 문제였다. 첫 번째 대화에 등장하는 학생들은 90년대 후반에 태어났으며, 두 번째 대화의 학생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났다. 90년대생 학생들은 성별로 구별되던 어조 학습에 일부 의문이 들더라도 그저 외웠거나, 전통적인 문화 통념에 기대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다. 본고의 필자들 또한 '남성적' 또는 '여성적' 속성이 고정적으로 갖는 이미지나 절대적인 특징이 있음을 무리 없이 받아들였고 관습적인 이해를 따랐다. 그러나 현재의 중·고등학생, 2000년 이후에 출생한 학생들은 무엇이 '여성적 어조'인지 또는 '남성적 어조'인지 그간의 교육적 관습에만 기대어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일 수 있다.

'우리 문학'에 대한 학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민족 공통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등³⁾ 교육과정 안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갓 사회에 뛰어든 본고의 미숙한 필자들도, 지난 동계 학술발표 당시 장내에 계셨던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국어영역 내 문학이라는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다. 그중에서도 고전 시를 포함한 시문학 장르에서 우리는 시적 話者와 '語調(tone)'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우리의 문학 교육 방식 중 하나는 단절되지 않는 '연장성', '확장성'을 추구하며 특정 情緒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고전문학, 옛 시를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시로 분류되는 장르를 감상할 때도 효과적인 학습 방식은 시어와 시의 전반적 분위기에 따른 어조를 파악하는데 있다.⁴⁾

3) 해당 용어는 중학교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전문교육 포함) 교육과정을 포괄한다.

4) 'I. A. Richards는 어조를 '총체적 의미를 형성하는 시적 의미의 하나'라고 했고, R. Wellek과 A. Warren은 '내적 형식의 하나'라고 했다. 따라서 시에서 언어 선택은 어조에 따라 결정된다. 어조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독자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시인의 고민 속에 구성된 화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어조라는 것은 단순히 시의 메시지나 정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구성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는 전략과 결부되어 있다.' (문광영, 『시 작법의 논리와 전략』, 개미, 2017, p.267.)

어조는 문화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본고의 핵심 소재인 '남성적 어조' 내지 '여성적 어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해당 어조가 드러나는 시의 분위기나 표현방법들이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 그 근거이다.⁵⁾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기존의 문화나 경험 등에 의해 우리의 사고는 은연중 어조의 '여성 속성'과 '남성 속성'을 구분해 냈다. '남성적'을 완성하고 '여성적'을 완성하기 위해 통용되었던 정서적 속성들이 있으며, 국어 과목에서 지속적으로 널리 교육되고 있는 것이다. 성별을 통한 어조의 분류는 학생들이 이러한 문화적 관습 내지 통용되는 속성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었을 때 유효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분적 구도'로서 규정되는 어조는 시에 등장하는 화자의 정체, 또는 작가의 실제 성별을 선행한다. '여성적 어조'가 드러나는 시들은 화자를 여성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작가와 작중 화자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현시점 문학의 학습에서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작가의 의도에 따라 화자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작자를 알 수 없는 옛 작품들의 경우 작품의 상황과 어조를 통해 화자가 도출되고, 작중 화자가 실제 작가의 성별과 신분을 대변하는 현상까지도 나타난다. 문화적으로 '남성적' 또는 '여성적' 어조로 인식되는 것들에 의해서이다. 이는 '보편적 表象으로 자리 잡은 일중

5) '화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를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된 연구는 논의 자체가 드물었지 않은가 싶다. 그리고 언제나 화자의 여성적 성향만을 문제로 삼았지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는 타당성과 관련된 논의는 전개된 바가 없는 듯하다. 이러한 논의는 현대시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金素月の 시 <진달래꽃>의 화자는 남성인가, 여성인가? 韓龍雲의 시 <님의 침묵>의 화자는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 부분에서도 역시 별다른 논의가 없이 여성화자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나머지 金永郎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같은 시기도 화자가 여성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한국고전문학사학회 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 월인, 2003. p.10, 참고.)

6) 서사 내 행위 주체(narrative agent), 즉 작품 화자의 신분과 지위, 상황과 태도는 실제 작가와 분리될 수밖에 없다. 시뿐만 아니라 더욱 복잡한 사건들이 드러나는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시점들, 나아가 '초점화자'와 '(실제)행위자'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창작할 수 있는 것 역시 유사 맥락이다. (미케 발,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참고.)

의 질서'라 표현되기도 하였다.

사실 특정 작품을 평가하고 분석할 때 '여성적이다' 혹은 '남성적이다'라는 속성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조의 성별 구분이 당대에도 유행했다 말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의 문학들은 작자층의 확대와 한글의 정착 이전까지는 모두 한문학 위주였으며, 表意 문자의 특성상 해석 시 문장 전반의 어조를 구어 및 한글문학보다 기민하게 감상할 수도 없을뿐더러, 특히 여성 작가의 문학은 별도로 다루어질 만큼 상대적으로 수가 적었다. 보다 '전통적'이라 할 수 있는 옛 문학의 이해 방식은 시의 분위기와 작중 화자의 어조가 '남성의 속성'인지 '여성의 속성'인지를 구별하기보다는 실제 작자의 성별이나 문체 자체를 평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문학 이해에 있어 성별 속성이라는 이분적 문화 표상에 기대는 교수법은 남성형 문장이나 여성형 문장 및 단어를 구별 짓는 서양의 문예사조 또는 가까운 일본의 회화나 교육의 일부 영향을 받은 형식주의적(formalism), 근대적인 해석방식으로 보인다.

중등 문학 교육에 있어 시를 읽고, 그 성격을 진단할 때 ()적 어조를 써놓은 뒤 '남성' 또는 '여성'을 골라 기입하는 교수법이 만연하다. 그러나 문화화된 성별 속성을 통한 이분적인 어조의 구별방식은 학생들의 질의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앞의 책, p.14. 한편 저자 중 한 명인 김대행은 '감정이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노래, 즉 '공감성'에 기대는 여성 화자의 속성은 문화적 표상으로써 여성 화자가 지닌 덕목과 힘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여성을 피동적 존재로 묘사하는 기존 사회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정서를 공유(공감성 획득 장치)하는 데 탁월한 문화 표상이 바로 '여성'임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해당 설명은 충분히 설득적인 논의이나, 중등 교육의 차원에서 도입하기에는 또 다른 오해의 여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8) 여성 작가의 시를 脂粉氣의 유무로 논의하거나, 또는 여성이 남성 작가에 비해 내면이 감성적이고 情이 쉽게 발현되어(天性) 詩作에 능하다는 등 작가나 사용 문체 '자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다. 남성 작가가 瘦한 분위기의 시를 내는 경향 역시 만연했으나 문체의 특성을 논의할 뿐 해당 문체를 '여성적'인 것으로 구별하고자 하는 평가는 별달리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실제 성별과 작중 화자의 문체 및 어조가 상이하여 이를 '글쓰기의 전략'으로 연구하는 경향은 최근 문학연구에서 나타난 것이다.

를 받기 충분하다. 현시점 중등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남성적/여성적 어조'라는 용어를 더이상 문화적 보편성에만 기대어 수용할 수 없는 세대인 까닭이기도 하다. 작품의 세부적 특징들을 통틀어 '남성적' 또는 '여성적'으로 맥락화하는 것이 문학의 이해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사랑을 노래하는 옛시조를 이해하기 위해 '여성적' 어조를 기입한다는 것은 현대 가요에서 애절한 이별과 사랑의 경험을 누구보다 애달프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남성 가수(화자)의 모습과 상충된다. '남성적/여성적 어조'를 일찍이 수용한 집단에게는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다. 시의 이해를 위한 편리한 방편, 교육적인 전통과 관습으로 설명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장 학생들의 의문에서도 볼 수 있듯 해당 이분적 어조 구분에 대한 질문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었으나 보편성이나 일반적 편의에 기대 지금까지 통용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고전교육이라는 기획주제 하에,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일차적으로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라는 이분 구도가 '시'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학습될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수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연구를 통하여 해당 명칭이 어느 정도의 실체가 있는 용어으로써 문학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갖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형화'라는 것은 애초에 분석의 편리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이다. '남성적' '여성적' 속성으로 시의 어조를 유형화하는 학습법은 관습적인 성별 속성에 대한 직관이나 이해가 없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역으로 문학에서 통용되는 성별 속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야 하는 문제를 낳는다.

본고는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문학 작품과 학습 활동 등을 중심으로 중등 교육에서 사용되는 남·녀 이분적 어조 구분과 그 실체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작성되었다.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에 사용되는 '남성적'과 '여성적'이란 단어는 남성/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용어가 아닌 문학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의존했던 이분적 문화 표상으로 이

해하는 것이 옳음을 밝힌다. 이하의 장들에서 남녀의 어조를 구분하는 실제 교과서의 작품들,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의 맥락 등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어조 학습: 교과서 수록 학습 목표 및 관련 문항 분석

어조는 화자의 감정 상태,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다. 가령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른 어조는 ‘권유’, ‘명령’, ‘기원’, ‘예찬’, ‘의문’, ‘간청’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른 어조는 ‘낙천적’, ‘염세적’, ‘애상적’, ‘관조적’, ‘절망적’ 어조 등이 있다. 대상을 보는 화자의 태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냉소적’, ‘친화적’, ‘비관적’, ‘풍자적’, ‘해학적’ 어조 등이 도출된다. 시적 화자 자체를 (성별 속성으로) 유형화할 경우 ‘남성적 어조’ 또는 ‘여성적 어조’의 이분적 구도로 분류한다.⁹⁾

물론 작가가 작품에서 주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일련의 목적하에 실제와 다른 성별의 페르소나(persona)를 사용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작품 내에서 화자의 성별을 한쪽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어가 제시되어 있더라도 성별에 따른 어조 규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지는 않는다. 즉, 여성 화자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시가 여성적 어조를 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화자의 행위와 작품 감상에 있어 독자들이 ‘남성적’ 또는 ‘여성적’ 속성 중 하나를 확연히 느끼고 도출해 낸다면 화자의 성별을 통한 유형화 방식은 유효한 지점이 있

9) 이상 어조의 유형화에 대한 설명 부분은 문광영, 『시 작법의 논리와 전략』, 개미, 2017, pp.268-269, 참고. 이와 같이 어조를 유형화하는 방식들은 전공자를 위한 문학 교육서나 이론서, 연구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별다른 이견 없이 사용된다.

다. 다만 현행 중등 문학 교육에서는 기존의 관습적인 이해에 기대 시의 감상에 선행하는 성별 속성 부여를 통해 독자의 해석의 틀을 규정한다. '관습적인 이해'는 무엇이 여성적이고 남성적인 어조인지에 대한 설명을 정당하게 소거하여 교사의 재량으로 돌리거나, 시의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정서를 특정 성별의 전유물로 설명하는 방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작품을 화자의 성별 속성에 따른 어조로 표현 및 분석하는 양상은 중등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흔히 목격된다. 고전문학 분야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과목(공통 과목)의 문학 영역 성취기준 "[10국05-03]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¹⁰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단원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는 부분을 한국 문학의 정서와 전통을 살펴보는 관점에서 풀어내는 것이다. 해당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12개의 검·인정 교과서¹¹) 중 본고는 대표적으로 '지학사, 비상, 교학사' 3종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지학사'는 여성적 어조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비상'의 경우 교과서의 한 단원 자체를 여성 화자의 전통을 이해하는 단원으로 구성하고, '교학사'는 연구용 교과서에서 작품 <가시리>의 성격을 여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지학사'의 경우 대단원 9단원에서 전술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9. 우리 문학의 길을 따라'라는 대단원 아래 '(1) 옛 노래의 향기'라는 중단원을 둔다. 시가 장르에서 나타나는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가시리>와 <속미인곡>을 제재로 한국 문학의 전통적 특질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가시리>는 작자 미상의 고려속요이며, <속미인곡>은 정철의 가사이다.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015, p.66.

11)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참조. 교학사(김동환), 금성출판사(류수열), 동아출판(고형진), 미래엔(신유식), 비상교육(박안수), 비상교육(박영민), 좋은책신사고(민현식), 지학사(이삼형), 창비(최원식), 천재교육(박영목), 천재교육(이성영), 해냄에듀(정민)의 12종의 교과서가 해당된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눈/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즐가 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즐가 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논는/ 선히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눈/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눈/ 위 증즐가 大平盛代¹²⁾

-<가시리> (작자 미상)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天上白玉京을 엇디하야 離別호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죽 호가마논/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퓌야 어즈러이 호뎃쨌디/ 반기시는 듯비치 네
 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생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죄 마티
 빠져시니/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름이라 허물호라/ 설위 플터 헤니 造物의 타시로
 다/ 글란 생각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마튼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春寒苦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秋日冬天은
 뒤라셔 피섯논고/ 粥早飯朝夕 피 네와 굿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
 시논고/ 님 다히 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
 가/ 내 마음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랏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피히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山川이 어둡거니 日月을 엇디 보며/ 咫尺을 모르
 거든 千里를 브라보라/ 출하리 물그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하니/ 브람이야 물결이
 야 어둥정 된더이고/ 샴공은 어딴 가고 빈 비만 걸렛논고/ 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消息이 더욱 아득호더이고/ 茅簷 춘 자리의 밤둥만 도라
 오니/ 半壁青燈은 놀 위하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力盡호야 풋증을 잠간 드니/ 精誠이 지극호야 꿈의 님을 보니/ 玉 마튼 열구리 半
 이 나마 늘거세라/ 마음의 머근 말습 슬크장 솟자 하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습인
 들 어이 호며/ 情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鷄聲의 잠은 엇디 쉰
 던고/ 어와 虛事로다 이 님이 어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썸을 열고 브라보니/ 어
 옛븐 그림재 날 조출 썸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落月이나 되어이셔/ 님 겨신 썸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들이야 쿠니와 구즌비나 되쇼셔¹³⁾

-<속미인곡> (정철)

12)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교과서』(2015개정), 지학사, p.318.

13)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교과서』(2015개정), 지학사, pp.319-320.

주목해볼 것은 한국 문학 중에서 '옛 노래'로 표현되는 시가 장르의 전통적 특질을 '恨의 정서'와 '여성적 어조'로 보고 있는 도입 부분이다.

<고등 국어 지학사(이삼형)>

9. 우리 문학의 길을 따라

(1) 옛 노래의 향기

-학습목표: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옛 노래를 감상한다.

"민중과 민족의 애환이 담겨 있다는 옛 노래 <아리랑>을 듣다 보면 가슴 뭉클할 때가 있다. 오랜 세월 내려온 전통문화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과 마음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아리랑>은 오늘날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하게 재탄생되어 널리 향유되고 있다. 이처럼 옛 노래의 전통은 현재까지 계승되면서 새로운 문화의 발전과 창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옛 노래의 전통 중에서도 이른바 한의 정서를 여성적 어조로 담은 <가시리>와 <속미인곡>을 감상하면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그리고 문학사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자."¹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무엇이 '여성적' 어조인가?

일차적인 문제점은 <가시리>와 <속미인곡>을 모두 여성적 어조를 띤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여성적 어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이 교과서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 내에서뿐만 아니라 연구용 교과서의 '제재 선정 의도'와 '제재 연구' 부분에서 두 작품을 모두 여성적 목소리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서술해 작품의 성격을 여성적 어조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여성적 목소리' 또는 '여성적 어조'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교과서 본문에서 여성적 어조를 통해 한의 정서를 표출하는 것이 한국 문학 중 '시가 장르의 전통'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14)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교과서』(2015개정), 지학사, p.317.

-제재 선정 의도-

"<가시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프고도 애절한 마음을 형상화한 시가이다. 이 작품은 우리 문학에 나타난 이별과 한의 정서를 3음보의 민요적 율격 속에 담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별의 정서를 여성적 목소리로 표현하여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속미인곡>은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알려진 조선 시대의 가사이다. 정철이 당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시기에 지은 작품으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읊으며, 여성적 목소리의 화자를 통해 '忠信戀主之詞'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후 노래 문학에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노래 문학의 특질의 일부를 이해하는데 적당하므로 이 두 작품을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학습하는 단원의 제재로 선정하였다."¹⁵⁾

<제재 연구>¹⁶⁾

<표 1> <가시리>에 담긴 옛 노래의 전통

내용 면	'恨'의 정서를 그려 냄.
형식 면	한 행을 끊어 읽는 단위가 세 마디임(음보율).
표현 면	여성적 목소리를 통해 정서를 표출함.

제재 선정 의도에서 언급하는 바처럼 여성적 목소리를 통한 화자의 정서 표출이 한국 시가 문학의 특질이자 현대로까지 계승되고 있는 전통이라고 할 때 그 중요성은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음 목표 학습 활동¹⁷⁾에서 <가시리>와 <속미인곡>에 나타난 우리 노래 문학의 전통적 특질을 화자의 어조 측면에서 단순히 여성적 어조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있다. 아래 <그림 1>을 살펴보자.

15)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연구용 교과서』(2015개정), 지학사, p.318.

16) 위와 같음.

17) 이삼형 외, 위의 책, p.323.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탐구하기

3. 「가시리」와 「속미인곡」에 나타난 우리 노래 문학의 전통적 특징 중 하나인 여성적 어조의 전통을 탐구해 보자.

(1) 두 작품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어조를 중심으로 「가시리」와 「속미인곡」을 비교해 보자.

	화자가 처한 상황	화자의 어조
「가시리」	임이 떠나려는 상황(임과 이별하려는 상황)	여성적 어조
「속미인곡」	임과 이별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상황	여성적 어조

3-(1) 이별기

「가시리」와 「속미인곡」의 시적 상황과 어조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의 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특히 화자의 상황의 유사점, 이를 표현하는 화자의 어조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중점을 두어 이해하도록 한다.

<그림 1> 여성적 어조를 탐구하는 학습 활동


위 학습 활동 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시의 '여성적' 어조에 대한 관념적인 이해를 확신하여 추가적 설명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해당 개념의 설명을 교사의 재량으로 넘기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별에 따른 어조를 오늘날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절차는 결국 역으로 '특정 정서나 태도에 대한 또 하나의 이분적 성별 부여'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별의 정한과 그리움의 정서, 그리고 기원의 태도나 높임말 등이 도출되는 시의 경우 여성적 어조로 귀결된다 는 식이다.

이처럼 여성적 어조라는 개념은 <가시리>나 <속미인곡>, <동동> 등의 고전 시가 작품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개념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부족하다. 모호한 어조 학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가 타 자료를 참고하여 성별에 따른 어조의 개념을 일방적으로 규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실제 학습자가 전통과 관습이라는 명목 하에 해당 개념을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편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음 학습 활동¹⁸⁾은 고전문학 작품의

18) 이삼형 외, 위의 책, p.325.

전통과 연장을 부각시키며 유사한 정서를 가진 현대가요를 찾고 논의하는 부분이다.

 (2) 두 작품의 화자와 비슷한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대중가요를 찾아보고, 노래의 정서와 태도가 어떻게 이어지고 변화하였는지 말해 보자.

4-(2) 이끌기

고전 시가, 현대 시, 대중가요를 비교하여, 폭넓은 개념의 문학과 예술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비교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내용적 측면의 전통이 무엇인지, 현대에도 이와 같은 전통과 특질이 함유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한다.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 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아무리 네가 날 밀쳐도 끝까지 붙잡을 거야
 어디도 가지 못하게

- 2에이엠(AM), 「죽어도 못 보내」에서

예시 답 · 앞에 제시된 두 작품과 위의 대중가요의 화자 모두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로 대중가요와 같은 후대의 작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후대의 대중가요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거부하면서 임을 보내지 않겠다는 적극적 태도와 의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그림 2> 고전과 현대가요의 정서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 활동

성별에 따른 어조의 규정은 자연스럽게 화자의 성별 규정과도 연관된다. 비상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¹⁹⁾를 살펴보면 지학사와 동일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8. 한국 문학의 빛깔'이라는 대단원 아래 중단원 '(2) 속미인곡/진달래꽃'을 두어 여성 화자의 전통이 계승되는 양상을 파악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비상 교과서의 경우 지학사와 달리 교과서 내에서 '여성적 어조'와 같은 성별에 따른 어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시가 장르의 전통적 특질을 '이별의 정한'과 '여성 화자'에 두며 여성적 어조 대신 여성 화자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 국어 비상(박안수)>

- 8. 한국 문학의 빛깔
- (2) 속미인곡/진달래꽃

19) 박안수 외, 『고등학교 국어-교과서』(2015개정), 비상

-학습 목표

1. 한국 문학에서 여성 화자의 전통이 계승되는 양상을 이해한다.
2. 우리말로 표현된 문학 작품의 가치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개념 알아 두기 1. 이별의 정한과 여성 화자

“한국 문학에서 ‘이별의 情恨’이라는 주제는 고대 가요에서부터 시작되어 시조와 가사, 현대 시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별을 노래한 작품 중에서도 남성인 작가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입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 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라는 뜻인 ‘忠臣戀主之詞’가 대표적이다. ‘충신연주지사’는 ‘임금-신하’의 사회적 관계인 ‘忠’을 ‘남성·여성’의 개인적 관계인 ‘그리움’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여성 화자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한층 애절하고 절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현대 시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학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²⁰⁾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작품 속 화자를 여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이다. <속미인곡> 화자의 성별을 작품의 ‘각시’라는 시어를 근거로 여성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현대 시 <진달래꽃>의 경우 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고등학생 독자가 읽는다면 단지 ‘임을 떠나보내는 어떤 사람’ 정도로 화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통상적인 이해와 관습으로 두 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라도, 화자와 어조의 규정은 별개가 될 수 있다. ‘여성화자 - 여성적 어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위 교과서의 ‘개념 알아두기’에서 제시한 설명을 보면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별의 안타까움을 한층 애절하고 절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여성 화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보다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느껴지는 분위기나 느낌, 즉 어조에 의해 이별의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이 더욱 절실하고 애절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해당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여성 화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성화자 - 여성적 어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0) 박안수 외, 위의 책, p.311.

조'의 연관을 기반으로 한 인식이 깔려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교학사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교사용) 3번 학습 활동에서 작품 <가시리>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여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작품 내적 근거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고등 국어 교학사(김동환)>

7. 한국 문학의 흐름을 따라가다

(1) 제망매가

-학습 목표

1. 고려 시대까지의 문학의 흐름과 사회상을 고려하여 연속성 있게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2. 한국 문학 고유의 특성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3. 주제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학습 활동

3. 다음은 이별을 제재로 한 고려 시대의 문학 작품²¹⁾이다. <제망매가>와 비교하여 감상해 보자.

<제재 연구>²²⁾

<표 2> <가시리>의 정보

갈래	고려 가요	성격	서정적, 전통적, 여성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이별의 정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법을 사용함. / ●희생적이며 미래 지향적임. ●간결하고 소박한 시어를 사용해 이별의 정한을 표현함. 		

교학사 교과서의 학습 활동 역시 앞서 살펴본 지학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성격에 여성적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개념 규정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시리>의 화자를 여성

21) <가시리>

22) 김동환 외, 『고등학교 국어-교사용 교과서』(2015개정), 교학사, p.314.

화자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작품의 성격을 여성적이라고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향후 교육에서 성별에 따른 작품의 어조 규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별에 따른 어조 구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는 없는가?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비상 출판사의 교사 연구용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한철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라는 대단원 아래 현대 시 작품 김영량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통해 여성적 어조의 의미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²³⁾

특징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경(아름다움에의 도취,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을 잘 보여 줌.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여 여성적인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나타난다.

학습 자료 바로 가기
DVD - 도입 영상, 시 낭송

02

모란이 피기까지는 | 김영량

모란이 피기까지는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소망, 보람, 삶의 가치' 등을 의미함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05
 화자의 기다림이 숙명적임을 암시함 △- 여성적 어조 (부드러운 어감, 섬세한 정서 형성)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모란이 낙화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슬픔에 잠길 테요
 삶의 보람과 의미를 한꺼번에 잃은 슬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봄이 지나간 뒤, 여름의 무더움 → 봄의 상실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피었을 때의 보람을 잃고, 화자의 소망도 무너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모란이 지는 것을 인생 전체를 잃는 것과 같이 생각함(과장법)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 모란을 잃은 슬픔
 기다림의 나날을 강조하는 표현 - 서글픈 정감의 깊이를 드러냄

이 작품의 사상 전개

1~2행 기다림	3~10행 슬픔, 상실감	11~12행 기다림
모란 - 봄		찬란한 슬픔의 봄 모란이 피는 기쁨 + 모란이 지는 슬픔
소망, 보람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15
 여전히 - 화자의 숙명적 기다림 역설법

<그림 3> <모란이 피기까지는> 제재 연구

23)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연구용 교과서』(2009개정), 비상, p.204.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과서 차원에서는 여성적 어조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있을 테요', '잠길 테요', '우웁네다'를 짚어내면서, 여성적 어조에 대하여 '부드러운 어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여성적 어조가 '섬세한 정서'를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성적 어조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짚어낸 부분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동일한 교사 연구용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한철우)를 보면, '1.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대단원 아래 제시된 이육사의 작품 <절정>을 통해 남성적 어조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과 같다.

<학습활동>²⁴⁾

2.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어조와 태도를 살펴보자

- (1)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어조를 말해 보고, 이와 같은 어조를 형성하는 부분을 찾아보자.
 - 어조 - 강렬한 남성적 어조, 비장하고 절제된 어조
 - 어조를 형성하는 부분 - '매운, 채찍, 갈겨, 북방, 고원, 칼날진, 강철' 등과 같은 강한 느낌의 시어 사용, '오다, 서다, 없다, 보다'와 같은 현재형 어미의 사용.
- (2) (1)과 관련하여 시적 상황에 대해 화자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알아보자.
 - 극한 상황의 '절정'에서도 화자는 오히려 강철과 같은 의지와 신념을 확인하고 있다.

<절정>의 어조를 강렬한 남성적 어조, 비장하고 절제된 어조로 규정하면서 '매운, 채찍, 갈겨, 북방, 고원, 칼날진, 강철' 등과 같은 강한 느낌의 시어가 사용된 부분과 '오다, 서다, 보다'와 같은 현재형 어미가 사용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남성적 어조²⁵⁾를 강렬한 느낌, 현재형 어미를

24) 위의 책, 비상, p.41.

25) 고전 작품 중 金宗瑞의 시조 <삭풍은 나모 굿티 불고> 또한 강렬한 시어의 사용과 호탕한 정서 등으로 남성적 어조로 분류되어 소개되는 주요 작품 중 하나이다. (朔風은 남 굿티 불고 明月는 눈 속에 춘디/ 萬里 邊城에 一長劍 잡고 서서/ 긴폭풍 큰 혼 소리에 거칠 거서 업세라)

활용하여 마무리 짓는 단정적인 말의 느낌으로 규정함을 정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별에 따른 이분적 구도의 어조로 표현하는 방식이 오늘날 교육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시의 어조를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 관습과 전통에 따라 사용되어 온 여성적 어조 및 남성적 어조를 바탕으로 시를 인식하는 것은 해당 성별로 표현된 용어에 담긴 의미를 자신의 가치관이나 규범으로 내면화하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남성적 어조라는 용어가 개념적으로 내포하는 '단정적임, 강렬함, 강함'이라는 의미를 남성의 특징으로 내면화하고, 여성적 어조라는 용어가 개념적으로 내포하는 '부드러움, 섬세함'이라는 의미를 여성의 특징으로 내면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관습과 전통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현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방법론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교육적 편의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학습자가 작품을 통해 배우는 문학사적 전통이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고정 관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면 성별에 따른 어조 표현 사용을 충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 의도로 선정된 교육 목표와 내용일지라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 또한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Ⅲ. 대안적 표현과 지속 필요성

남-녀 이분적 구도로 어조를 구분해 작품을 유형화하는 학습법은 성별에 관한 관습적인 정서를 수용했던 집단에게는 편리한 수단이다. 그로 인해 여성적-남성적 어조의 뜻이 교과서에서 제시되지 않고, '괄호 넣기'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대 학습자에게는 해당 용어의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것인지 교사가 역으로 다시 설명해야 하므로 지도의 효율 역시 저하되기도 한다.

중등 문학 학습에서 관습적으로 통용되던 용어가 오늘날 학생들에게

문제시된다면, 교육자로서 용어에 대한 대안적 표현들을 고안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적 부분을 인식한 결과인지 앞서 살펴본 2009 개정 교육과정 비상 출판사의 고등 문학(한철우)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뀐 후 김영랑의 작품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제시할 때 여성적 어조라는 표현을 전면 삭제하고 '부드러운 어감, 섬세한 정서 표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남-녀 이분적 구도에서 어조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의 반영이라고 여겨진다.

현직 교사가 문학 용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술한 강영준(2013)²⁶은 남-녀 이분적 구도에서 바라본 어조의 구분을 사회적 관습의 반영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단 남성적 어조는 대개 상황을 단정하는 어미나 명령형 종결 어미를 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데 어울리며 의지적이고 힘찬 기백을 담은 내용을 전달하기에 적절합니다.

이에 반해 여성적 어조는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의 여성성이 드러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성적 어조는 간절한 기원, 애상의 내용을 전달하기에 적합하며, 높임, 청유형, 가정형 등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²⁷

위 설명을 정리하자면 곧 남성적 어조는 [+단정적], [+명령형], [+의지적], [+강함] 등의 의미 자질을, 여성적 어조는 [+부드러움], [+유연함], [+간절함], [+애상적], [+청유형] 등의 의미 자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나 문체 속성 나열식의 개념 규정은 교육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함 여부를 떠나서라도 한계를 갖게 된다. 관련하여 저자는 남-녀 이분적 구도에 의한 어조 구분하에 규정될 수 없는 작품 <招魂>²⁸을

26) 강영준, 『국어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문학질문사전』, 북멘토, 2013.

27) 강영준, 위의 책, p.206.

28) 김소월의 <초혼>을 예로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절규하듯이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적인 어조가 쓰였다고 볼 수도 있으며, '애상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적 어조라고 본다는 측면에서 여성적인 어조가 쓰였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강영준, 위의 책, p.207, 참고.)

예로 들며 '시의 어조를 이분적 구도로 제한하지 않고 반복과 영탄을 통한 강렬한 어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²⁹⁾고 설명한다. 단정적이면서도 애상적인 시는 남-녀 이분적 구도 중 한쪽으로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관습에 대한 현대 학생들의 의문 및 지도의 모호함뿐만 아니라, 애초에 다양한 정서와 문체를 내포한 작품을 두 개 성별 중 하나로 분류하고자 한 것이 합리적 유형화 방식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지학사 국어 교과서의 대단원 '1. 문학 속으로'라는 대단원 아래 제재로 수록된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지나긴 밤을>에 제공되는 교수-학습 지원 학습지³⁰⁾를 살펴보아도 남-녀 이분적 어조 규정의 한계가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 정리

갈래	() ^① , 고시조 단시조
성격	() ^② 낭만적, 연정적
어조	그리움을 담은 (여성적) ^③ 어조
제재	밤
주제	임에 대한 () ^④ 과 애뜻한 () ^⑤
특징	•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 ^⑥ 로 형상화함. • () ^⑦ 를 통해 우리말의 묘미를 적절하게 살림.

• 표현상 특징

화자의 적극적 태도	임과의 이별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동짓달 긴 밤의 '한 허리를 버려 내며' 다시 입을 만나는 날에 이어 붙이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줌
유음을 활용한 운율감 형성	'동짓달', '밤을', '허리를', '니불', '서리서리', '어른 남', '오신 날', '퍼러라' 등에서 유음 () ^⑧ 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운율감이 느껴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림.	'서리서리', '구뽀구뽀'와 같은 의태어(의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노래함.

<그림 4> <동짓달 지나긴 밤을> 제재 학습 핵심 정리

여성적 어조가 여성 화자의 관습적 보편적 속성³¹⁾으로 여겨지는 '소극성'과 '피동성', '수동성' 등으로도 귀결된다면, 위 황진이 시조를 여성적

29) 강영준, 위의 책, pp.207-208.

30) 교과서 제재 학습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교수-학습 지원 자료임을 밝힌다.(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교과서』(2015개정), 지학사, p.14, 관련.)

31) 여성 화자 및 여성적 어조의 특성을 주변성, 소극성(悽然), 타자성, 피동성(悽然, 被虐), 수동성으로 조망하는 일은 보편적 사실이 되었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고전문학학회 편, 앞의 책, pp.32-33, 참고.)

어조로 규정한 뒤 화자의 태도를 '적극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떠나간 입을 그리워하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능동적 태도를 보이는 작품은 기존의 여성적 어조로 정의하기 모호할 수밖에 없다. 학습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고전뿐만 아니라, 고전의 전통을 계승하는 현대 문학 장르까지. 우리 문학 작품을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로 유형화해야 하는 교수법이 반복될 경우 독자의 작품 감상에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한다. 결정적으로 학생들이 어조의 성별에 따른 의미 자질을 '성별-특징'으로 연결하여 내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교육학에서 설명하는 일종의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으로 설명할 수 있다.³²⁾ 문학사의 흐름을 파악하며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하는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이 학교 및 교사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학습자가 성별에 따른 고정된 관념을 경험 및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남성적 어조로 대변되는 강인함과 의지적인 특징들이 생물학적 성이 남성인 학생들에게 당연히 견비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여성적 어조로 대변되는 부드러움과 유연함이라는 특징들이 생물학적 성이 여성인 학생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에 대한 일차적 대안으로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로 각기 분류되던 표현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명령형 어미를 사용한 단호한 어조', '영탄적 어조', '애상적 어조' 등과 같이 화자의 정서와 태도 '자체'를 지칭하는 말을 사용해 보다 객관적으로 작품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작품 내부 상황을 분석하게 되면서도, 독자가 작가의 페르소나와 글쓰기의 전략을 보다 자유롭게 상상해보고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학생들은 남성 속성 및 여성 속성 등 현재 본인의 사고와 부합하지 않는 이전의 관습으로 작품을 파악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2) 김미환 외, 『현장 교육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11, p.125, 참고.

교사 역시 '왜 이 작품의 어조가 왜 여성적/남성적인가요?'와 같은 질문들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질문은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교실의 학생들 대부분이 수궁할 수 있는 답변을 구성해야 하는 교사의 딜레마를 야기한다. 우리 문학이 가진 전통과 흐름을 배우는 학생들이 '틀에 갇힌 것' 내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오늘날의 교사들이 관심 갖고 신경 쓰는 부분이다.

학습자들이 기초 중등 교육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교과서에 이러한 남·녀 이분적 구도에 따른 어조 구분 학습법이 지속되는 것은 현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행인 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6월, 9월 모의평가라는 주요 시험에서는 여성적 어조나 남성적 어조 등의 개념 사용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앞서 문제 제기한 교과서 작품 중 하나였던 정철의 <속미인곡>을 활용한 최근 모의평가 문항이다.

위 문항에서는 교과서에서 여성 화자 및 여성적 어조로 분석되곤 했던 정철의 작품 <속미인곡>을 보기로 제시하고 있다. 다섯 개의 선지 중 적절한 설명에 해당하는 ①, ②, ④, ⑤번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네 개 선지는 모두 표면적으로는 어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내용은 얼마든지 어조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①번은 의지적 어조, ②번은 소망(바람)의 어조, ④번은 쓸쓸함의 어조, ⑤번은 그리움의 어조이다. 해당 문항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작품에 다양한 어조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남·녀 이분적 구도에서 벗어나 정서 자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작품의 어조를 설명하고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의 정서와 어조를 기존의 주요 개념이었던 '여성적 어조'로 집약하지 않고 개별적인 정서와 태도로 서술함으로써 문학 감상의 자유도를 높이고 수험생들의 의문이나 문제 제기 또한 피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접하고 학습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학교 교과서이다.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하는 교육 목표하에 '남성적' 또는 '여성적'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부(十二樓) 어디에오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진(紫淸殿)이 가렸으니
천문(天門) ㉠ 구만 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같듯 말동
차라리 식어지어 억만(億萬) 번 변화(變化)하여] [A]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닛이 되어]
이화(梨花)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올거든
삼청동리(三淸洞裡)에 저문 하늘 ㉡ 구름 되어
㉢ 바람에 흩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옥황(玉皇) 향안 전(香案前)의 지척(咫尺)에 나아 앉아
흉중(胸中)에 쌓인 말씀 풀켜서 사되리라] [B]
어와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늦게 나니
황하수(黃河水) 맑다마는
㉣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끝이 없고
가 태부(賈太傅)의 닛이런가 한층은 무슨 일고
형강(荊江)은 고향(故鄉)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落)하니
㉤ 백구(白鵠)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던니
어부는 듯 괴는 듯 남의 없는 일을 만나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오색(五色)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을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회(秋毫)나 같으리라
백옥(白玉)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키더니] [C]
장안(長安) 어젯밤에 무서리 심어 쇠니
일보 수죽(日暮簫竹)에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할사*]... [D]
유란(幽蘭)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E]
약수(弱水) 가려진 태 구름 깊이 험하구나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삼청동리: 신선이 사는 동네 안.
* 초객: 초나라의 시인 굴원.
* 가 태부: 한나라의 태부 가희.
* 일보 수죽: 해 질 녘 대나무.
* 취수도 냉박할사: 푸른 옷소매도 작디작구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여 상대방을 회화하고 있다.
 -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④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교훈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경물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45.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만분가』는 유배를 간 작가가 친왕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연군(戀君)의 마음을 표현한 유배 가사의 효시이며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가사 문학의 대표작인 『속미인곡』 역시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작가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만분가』의 형식을 계승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보기 2>

모침(茅簷) 한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가]
반벽청등(半壁淸燈)은 눈 위하여 밝았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깥이니
저근딛 역진(力盡)하여 풋잡이 잠만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옥(玉) 같은 얼굴이 반(半)이 넘게 늙으셨네] [나]
마음에 먹은 말씀 술가장 싫자 하니] [다]
눈물이 바라 나니 말씀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었으니
방정맞은 계성(鷄聲)에 잠은 어찌 깨었는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겉에 일어나 앉아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라]
어려운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식어지어 낙월(落月)이나 되어 있어] [마]
임 계신 창(窓)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 정철, 『속미인곡(續美入曲)』 -

- ① [A]와 [마]에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B]와 [다]에는 마음에 담아 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 ③ [C]와 [나]에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 ④ [D]와 [가]에는 임금과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공간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함이 담겨 있다.
- ⑤ [E]와 [라]에는 먼 곳에 있는 임금에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그림 5> 정철의 <속미인곡>을 보기로 활용한 모의평가 문항33)

어조로 작품을 파악하고 유형화하는 교과서 내용은 현시점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젠더(gender) 이슈에 기민한 현대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문학 지도는 기존의 관습적 성별 속성을 별도로 이해할 필요 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닐까. 국어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며 평생 독자로서 문학 작품을 가까이하고 문학 작품 읽기를 생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학생들의 문화와 사고를 존중하고 감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상으로 본고는 교실에서 발생한 실질적 문제제기와 교과서 및 지도서 텍스트를 바탕으로 현대 학습자를 고려한 작품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남-녀 성별 구도로 정서와 태도를 분류해 작중 어조를 설명하는 현행 지도법을 지양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기초 고전 작품의 지도 및 중등 문학 교육의 방향 설정에 본고의 논의가 조금이나마 고려되길 바란다.

〈參考 文獻〉

- 강영준, 『국어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문학질문사전』, 북멘토, 2013.
- 김미환 외, 『현장 교육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11.
- 문광영, 『시 작법의 논리와 전략』, 개미, 2017.
- 미케 발,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 정제호, 장정수, 『송강가사』, 신구문화사, 2006.
-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 월인, 2003.
-
- 김동환 외, 『고등학교 국어-교사용 교과서』(2015개정), 교학사.
- 박인수 외, 『고등학교 국어-교과서』(2015개정), 비상.
-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교과서』(2015개정), 지학사.
-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연구용 교과서』(2015개정), 지학사.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연구용 교과서』(2009개정), 비상.
-
-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015.
- 김양은, 「구성주의 교육방법에 의한 시 어조 교육 방안」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 about 'Masculine-tone' and 'Feminine-tone' in the Secondary School Course Pre-modern Literature

Goo, Tae-un* · Song, Ha-on**

Learning 'tone' is important works in secondary school curriculum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situation of the narrator or mood of the poem. In particular, categorizing the tone according to gender, such as 'male-tone' and 'feminine-tone', used continuously for analyzing poetry. This study attempts to raise the issue of masculine and feminine tone that we have used customarily. We specifically analyzed the above problems through practical questions from students, and also analyzed textbooks and instructional textbooks for teachers. Furthermore, We deviated from a fixed understanding of gender, proposed a realistic method to students to learning literature more actively and effectively.

Distinction between the two tones through cultural gender attributes is issue for curren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is is because they are no longer able to accept male and female attributes against cultural tradition. Even now, many textbooks analyze poetry that should be basically learned in our literature according to gender attributes. For example, the feminine tone is soft and delicate, and It used mourning or longing stand out, and the masculine tone is used harsh strong poetry or the intense feelings appear.

This distinction has limitations that it is not possible to answer whether gender itself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correspond. It is not the way it has been used before. Decisively, the effectiveness of this method is also weak, because students should be given additional explanations of 'what is masculine?', 'what is feminine?'. If this method continues, can also have negative influence for students to internalize stereotypes by gender during they grow. Therefore, instead of the distinction between masculine and feminine tones, Expressions that evaluate the Narrator's 'emotion' should be recommended, such as a soft tone and rigid tone.

[Key words] Korean pre-modern education, Masculine tone, Feminine tone, Poetry, lyrics, Literature textbook

투고일 : 5월 25일, 심사완료일 : 6월 11일, 게재확정일 : 6월 16일

* (First Auth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Yonsei University. (Ph.D.Course) / camus1208@naver.com

** Dongducheon-jungang High school teacher / gkdhs4239@naver.com